

# 독일의 노동교육 : 노동학 교과를 중심으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 들어가며

독일 교육과정에서 노동학 교과과목 도입에 대한 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졸업 후 직업생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막 노동시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현대화, 자동화되는 제품 생산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학교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즉 현장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훈련교육을 위주로 하는 과목을 교과과정에 도입하기로 하고 1969년 '노동학(Arbeitslehre)'이 독립적인 과목으로 교과과정에 편성된다. 노동을 중심주제로 하는 노동학은 기술개발과 사회현상에 영향을 받아 노동기술, 전반적인 노동조건, 경제상황, 글로벌화, 주요 업종 등 노동현장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담고 있다.

현재 독일 16개 연방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교육은 각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노동학 과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일부에서는 노동학이 '경제-노동-기술(Wirtschaft-Arbeit-Technik: WAT)' 또는 '노동과 직업(Arbeit und Beruf)'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과목으로 진행하거나 교과내용을 단일 과목이 아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정흥준·송태수·심성은·진숙경·황수옥(2018),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보완한 것이다.

닌 여러 과목에 조금씩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등 주별로 노동교육의 비중, 교과내용과 수업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노동학 수업 시작이 졸업을 앞둔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이후 노동학 교과내용의 개편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김나지움(독일의 인문계 중등교육기관-편집자 주)으로 확대하고 상급학교가 아닌 중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변화를 거쳐 왔다. 이렇듯 독일의 노동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노동조직과 노동시장의 변화와 같이 노동현실이 달라지는 것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직까지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교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독일 노동학의 도입, 변화과정과 교과내용에 대한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독일의 노동교육<sup>1)</sup>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에서 노동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노동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노동을 통해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동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직업선택을 돕고 다른 하나는 노동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다.

### 독일의 교육 시스템과 실행체계

독일의 교육과정은 4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 초등과정, 2단계 중등1과정, 3단계 중등2과정, 4단계 대학교 과정으로 나뉜다. 초등과정, 중등1과정은 의무교육이며, 과정에 따라 학교의 종류도 나뉘는데 중등1과정에는 기본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종합

1) 이 장은 정흥준 외(2018),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중 제5장 「독일의 노동교육 사례」(송태수)를 참조하였다.

학교(Gesamtschule), 그리고 김나지움(Gymnasium)이 있다. 기본학교와 실업학교는 실업계이고 김나지움은 인문계이며 인문계와 실업계가 통합된 종합학교가 있다. 중등2과정에서는 배우는 내용에 따라 학교의 종류가 나누어지며 직업학교(Berufsschule),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와 인문계 상급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통상적으로 중등2과정 중 직업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바로 취직을 하게 되고 김나지움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을 하고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독일의 이러한 교육시스템 중 특히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듀얼시스템(Duales System)은 독일 노동교육의 특징으로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기업에서 직업훈련과 실습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독일 16개 연방 주는 독립적인 교육과정과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주 교육장관협의회(Kultusminister Konferenz - Bildung, Wissenschaft, Kultur: KMK)를 구성하여 다른 주로 전학하는 학생들을 비교 가능하게 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장관협의회는 각 주가 서로 비슷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졸업장, 자격증 등)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고 학교,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교육, 학문 및 문화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 독일 노동교육의 주요 내용

독일 노동교육의 주요 내용은 진로 오리엔테이션, 노동문화,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비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중등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은 중등과정에서 직업과 진로설계, 노동과 사회 및 사회보장, 그리고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부분을 배운다. 교육방법은 교과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과 실습 및 현장학습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졸업을 앞둔 9~10학년 학생들에게는 '경제와 노동'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및 사회적 관점, 이해집단과 단체협약 당사자들의 문제, 기업의 폐해 또는 실업과 빈곤 문제 그리고 경제와 생태계 문제 또는 세계 경제관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듀얼시스템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독일

의 직업학교는 학교에서 이론학습을 하고 기업에서 실습생으로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학교와 기업의 연계 교육과정은 실습생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보장받도록 하고 실제로 기업은 실습생을 시간제 학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독일에서 듀얼 시스템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산업체에서의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 ■ 독일 노동학의 발전배경과 교육과정의 실행

### 노동학의 발전배경

독일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 2차 대전 후 재건사업이 한참인 상황에서 정작 일을 시작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생활로 전환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그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직업교육의 부재가 특히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은 ‘청년들의 직업위기’라며 청소년들에게 현대화·자동화되어 가는 제품 생산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2)</sup> 이러한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이 직업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 중 가장 지배적인 주장은 ‘직업교육은 특히 실질적 능력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단계에서부터 삶과 밀접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논의 시작단계에서 두 가지 의견이 형성되었는데, 직업과 노동에 관한 문제제기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학교 밖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왜 초기 노동학과 관련된 논의에서 전반적인 노동

2) DGB(1952), Arbeitslosigkeit und Berufsnot der Jugend.

교육의 비중이 낮아지고 직업교육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설명한다.<sup>3)</sup>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9학년부터 노동학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었고 학생들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직업선택에 도움을 받고 사업장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방법이 도입되었다.

## 노동학의 발전과정

각 연방 주의 정책에 따라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MK)를 통해 교과과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학 도입도 각 주별로 약간의 시기상 차이를 두고 연방 주 전체로 확대되었다. 노동학의 도입 후 여러 차례 개혁을 통해서 노동학 수업 시작시기의 조정,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확대 혹은 축소, 교과서 내용 변화 등이 이루어졌다.

|            |   |
|------------|---|
| 1964년      | 독일 교육과 직업훈련위원회(Deutscher Ausschuss für das Erziehungs- und Bildungswesen-DA)의 기본학교(Hauptschule) 설립을 위한 계획을 통해 독립적인 과목으로 노동학 도입에 대한 논의 |
| 1969년      |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MK)에서 노동학 도입을 결정  |
| 1969년      | 바이에른 기본학교 9학년에 노동학 도입   |
| 1970~1974년 | '바이에른 학교 개혁'에서 기본학교 7학년과 8학년에 노동학 확장 도입   |
| 1974년      | 노동학의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  |
| 1976년      | 기본학교에서 노동학 커리큘럼은 대부분 경제에 관한 내용이 지배적으로 구성됨   |
| 1977년      | 직업전문대학 커리큘럼으로 노동학 도입  |
| 1985년      | 노동학 내용 중 경제에 관한 내용을 줄이고 직업교육에 관한 내용 위주로 개편  |
| 1987년      | 노동학이 모든 학교의 8학년과 9학년에서 의무교육화  |
| 1987년      |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MK)에서 중등1과정에 노동학 도입 결정  |
| 1997년      | 노동학에 경제구조에 관한 내용 추가   |
| 2004년      | 과목 이름이 노동학에서 '노동-경제-기술(Arbeit-Wirtschaft-Technik)'로 바뀌고 5학년 교과과정에 도입  |
| 2018년      | 교육 플러스 계획   |

3) Dederling(2002), Entwicklung der schulischen Berufsorienti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 18, 19.

## 주요 연방 주의 노동교육과정 현황

노동학은 일부 연방 주에서는 주로 종합학교나 실업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연방 주에서는 노동학의 내용이 각기 다른 과목으로 흡수되어 수업이 진행되거나 또는 과목 이름이 ‘경제-노동-기술(WAT)’ 등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독립적인 노동교육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는 연방 주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베를린(Berlin)

베를린에서는 통합 중등학교 7~10학년에서 ‘경제-노동-기술(WAT)’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 커리큘럼부터 경제-노동-기술(WAT)로 이름이 바뀌어 노동학의 중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노동교육과 관련하여 베를린 교육부는 “노동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지식 이외에 문제해결, 협력 및 창의력과 같은 기본 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 경제 및 가정에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업은 교실뿐만 아니라 학습 작업장(Schulischen Werkstätten) 및 학교 밖의 실습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 함부르크(Hamburg)

함부르크에는 2010년부터 새로운 학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업학교, 기본학교와 종합학교 및 중등학교로 구별된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함부르크에서는 여전히 노동학 과목으로 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노동과 직업(Arbeit und Beruf)’ 과목으로 개설되어 시행 중이다. ‘노동과 직업’ 과목의 학습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술과 경제’에서는 노동, 업무와 기술적 조치, 기술 시스템 및 프로세스 제어, 상품생산, 생산비용 등을 다루고 있다. 둘째, ‘가정과 경제’에서는 가정에서 노동과 생활, 영양과 건강, 가정과 가사 기술, 상품과 과정의 사용 및 평가, 소비자 결정 및 소비자 행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셋째, ‘진로의 선택’에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적인 계획, 노동의 직업성, 변화 속에서 노동과 직업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전의 노동학에서 다루던 주제들은 새로 구성된 과목 ‘경제’에서 다

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sup>4)</sup>

### 헤센(Hessen)

헤센에서 노동학은 모든 공교육에서 독자적인 과목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김나지움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직업훈련의 준비 및 평가, 노동을 위한 준비 등과 같은 주제의 노동학이 헤센의 교육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지금은 기본학교와 실업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세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동학은 5~6학년에서 시작하여 기본학교 10학년까지 주당 최대 16시간, 실업학교에서는 주당 8시간, 종합학교에서는 주당 4시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sup>5)</sup>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2010년에 개정된 학교법에 따라 ‘노동-경제-기술(AWT)’ 과목이 중등1과정에 개설되었고 5학년부터 주당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기본학교와 실업학교 5~6학년, 종합학교에서는 ‘직업(Beruf)’으로 김나지움 7학년과 10학년에서 ‘노동-경제-기술(AWT)’ 과목으로 노동교육이 시행되고 있다.<sup>6)</sup>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2011년부터 노동학을 위한 광범위한 핵심 교과과정이 편성되었고 이 커리큘럼에는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가사, 기술 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포함되었다. 새롭게 편성된 핵심 교과과정에는 종합학교와 중등과정의 선택과목으로 노동학(가사/기술/경제)이 포함되었다.<sup>7)</sup>

4) <https://bildungsserver.hamburg.de/>

5) <https://dms-portal.bildung.hessen.de/>

6) <https://www.bildung-mv.de/>

7) <https://www.learnline.schulministerium.nrw.de/>

## ■ 독일 노동학의 특징

### 노동현실의 변화와 노동교육의 연계

1969년 노동학 과목 도입 초기에는 졸업을 앞둔 9학년 학생들의 직업훈련을 위주로 수업과정이 시행되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동학의 내용, 수업시기와 수업방법의 꾸준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 개혁을 통해 9학년에서만 시행되던 노동학 수업을 7~8학년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교과 내용 또한 목적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사업장 견학을 중심으로 매 학년 다양한 업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교습방법을 도입하였다.

1980년대 독일의 노동사회는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업에서 노동 유연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이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 올바른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학은 직업의 영역에서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계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육체노동자와 지식노동자를 구별하던 것을 바꾸어 전체 노동자로 인식하도록 명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노동학이 중등1과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등2과정까지도 노동학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97년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MK)에서는 모든 연방 주의 김나지움 상급단계와 직업전문학교에서도 노동학 수업을 하도록 결정하였다.<sup>8)</sup> 1997년 개편을 통해 노동학의 주제 영역이 노동, 직업, 기술, 경제, 가정경제에서 확대되어 정보기술, 통신기술, 일과 여가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인원감축, 노동조합의 변화, 숙련구조의 변화 등 빠르게 바뀌고 있는 노동환경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2004년 교육개편의 큰 변화는 노동교육이 노동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1997년 교육계획을 통해 김나지움까지 확대된 노동교육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면서 과거 직업학교에 중점을 두었던 노동학을 더욱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각 주에서 노

8) KMK(1997), Vereinbarung zur Gestaltung der gymnasialen Oberstufe in der Sekundarstufe II.



동학 과목의 이름이 노동·경제·기술로 변경되거나 노동학 교과서를 아예 없애고 노동교육의 주요 내용을 사회, 정치/경제, 역사, 기술 등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으로 분산시키기도 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김나지움까지 확산된 실습위주의 노동교육은 노동에 대한 이론적인 준비와 평가가 미흡하여 사실상 진로선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연방 주 김나지움에서만 노동학이 개별과목으로 수업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의 수업에서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각 과목으로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노동교육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각 과목과 노동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sup>9)</sup>

2018년 교육과정 개편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연방 주 교육장관협의회(KMK)는 “미래의 소비자로서, 시민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 경제,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교육은 초등과정과 연계하여 5학년부턴 시작해야 하며 특히 노동의 이해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은 노동, 경제, 기술, 직업 및 법률 분야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노동과 경제분야의 중요한 사실과 그 사이의 연계도 이해해야 한다”<sup>10)</sup>고 밝히고 있다.

### 독립교과목으로서 노동학의 특성과 의미

노동학의 목적은 1969년 노동학이 독립된 과목으로 교과과정에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에게 노동과 직업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다. 헤센 주 문화교육부에 따르면 “노동학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개념의 형성을 통해 노동과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 Dederig, Heinz(2002), Entwicklung der schulischen Berufsorienti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 29.

10) Rausch(2016), Fachdidaktik Arbeitslehre. S. 24.

따라서 노동은 노동학 수업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교습법적 체계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특히 노동의 주제는 기술적, 경제적, 친환경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1)</sup>

독립과목으로서 노동학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노동교육은 처음엔 직업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점점 그 범위가 인문계 김나지움까지 확대되고 노동교육의 시작도 중급과정에 저학년으로 내려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노동교육은 노동의 범위를 직업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삶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사실상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금노동과 부불노동 모두를 노동의 영역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주요 교과 주제를 직업훈련과 직업선택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나 가사노동에까지 확장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직업선택을 시작으로 근로계약, 임금, 산업재해, 노동법률, 실업 등 노동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은 기술과 사회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 경제, 노동의 미래와 같은 주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노동교육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론과 실습에 중점을 둔 교습방법을 강조하며 사업장 실습과 학교 안과 밖에서의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노동학 교과서의 구성

현재 헤센 주에서 5~6학년과 8~9학년에서 독립적인 과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학 1과 노동학 2를 통해 노동학 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노동학 교과서의 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직업의 선택, 기술 시스템과 과정, 노동의 체계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구조, 건강한 정신과 신체, 노동의 미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6개의 주제 영역은 노동학 1과 노동학 2가 동일하며 노동학 1에서는 각 주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념 및 현상을 배우고, 노동학 2에서는 주제별 지식을 더 넓고 깊게 배운다. 교과서는 각 주제에 대하여 사진, 도표, 그림, 통계자료, 적절한 예시, 각 주제에 맞는 언론기사나 문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11) Arbeitslehre – Bildungsstandards und Inhaltsfelder(2018),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S. 11.

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잘 숙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수행과제는 첫째,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노동과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시스템 및 구조와 문제들에 대해 서술하고 분류하며, 개별 사례에 대하여 배운 지식들을 더 확장시켜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취합, 서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수행과제를 통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행과제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상황의 배경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선 과정을 통해 이론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직접적인 실습을 통한 교육을 받는다. 실습교육은 노동학 수업을 잘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습을 준비·수행·평가하거나 프로젝트의 준비와 발표, 또는 역할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론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 ■ 시사점

노동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실업학교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노동교육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동학 교과과목의 내용은 직업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임금노동 외에도 가사노동과 봉사활동과 같은 부불노동도 노동의 범위에 포함시켜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 직업활동을 통한 생계보장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요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독일 헤센 주의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학 노동교과서에서는 노동에 대해 “사람은 자신의 노동과 직업을 통해 음식, 의복, 주거 등에 필요한 돈을 번다. 따라서 직업은 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며 노동은 가족, 여가 또는 친구들과 같이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사회에서 직업은 한 개인의 외관을 결정하기도 하면서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한 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같은 형태의 노동도 있다. 스스로 또는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소평가되어 있고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가족의 부양과 행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sup>12)</sup>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실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또는 시민사회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교육을 독일에서와 같이 노동학과 같은 체계적인 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KLI**

---

## 참고문헌

---

- Deutscher Gewerkschaftsbund(1952), “Arbeitslosigkeit und Berufsnot der Jugend”, Erarbeit von der Sozialwissenschaftlichen Arbeitsgemeinschaft zur Erforschung von Jugendfragen unter der wissenschaftlichen Leistung von Helmut Schlesky, Köln.
- Dederling, Heinz(2002), Entwicklung der schulischen Berufsorienti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Berufsorientierung in der Schule. Grundlagen und Praxisbeispiele, Bad Heilbrunn.
- Hessisches Kultusministerium(2018), Arbeitslehre - Bildungsstandards und Inhaltsfelder.
- Kultusminister Konferenz - Bildung, Wissenschaft, Kultur(1997), Vereinbarung zur Gestaltung der gymnasialen Oberstufe in der Sekundarstufe II.
- Rausch(2016), Fachdidaktik Arbeitslehre.

12) Praxis Arbeitslehre 1(2017), Westermann.